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시험발사를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시험발사를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조건과 주체적전쟁방식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 무한궤도식자행발사대차와 정밀조종유도체계를 갖춘 탄도로켓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탄도로켓의 진술기술제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종전의 《화성》계열로켓들보다 발사전 준비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발사시간을 훨씬 단축하도록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적들의 무력도발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지휘소에 오르시여 시험발사계획에 대하여 청취하시고 탄도로켓발사명령을 내리시었다.

임의의 지역의 적대상물들을 초정밀타격할 수 있는 새형의 정밀유도탄도로켓의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며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새롭게 설계제작한 무한궤도식자행발사대차의 운영민음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시험발사는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단계까지의 세밀한 원격관측을 위하여 중등사거리사격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미제국주의와 그 졸개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위력한 주체탄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동터오는 동쪽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뢰같은 폭음을 울리며 원추격멸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주체무기를 바라보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탄도로켓은 중등사거리를 비행하여 예정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하였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능동비행구간에서 조종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켓의 비행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간비행구간에서 소형열분사발동기에 의한 속도교정 및 자세안정화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되었다.

또한 보다 정밀화된 말기유도체계에 의한 재돌입구간에서의 초정밀유도정확성을 확증하였으며 각이한 지형조건에서 새로 개발한 리대식자행발사대차의 주행특성과 자동화된 발사준비공정의 특성들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의 성공적시험발사를 보시면서 우리 동무들이 또 하나

큰것을 해냈다고, 태양절 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처음으로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던 이 탄도로켓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것만 같다고, 저 정도의 명중정확성이면 적들의 눈깔도 파먹겠다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직접적령도에 의해 계속 승리적전진만을 이룩해가고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이 이 체는 세계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들을 마음먹은대로 우리 식으로 이루어가고있다고, 우리 당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5월 한달 기간에만도 우리는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다종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탄생하여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이 비할바없이 향상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를 탈 때마다 미국놈들의 고민이 커질것이며 괴뢰군깡패무리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것이라고, 우리는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당의 웅대한 국방공업정책관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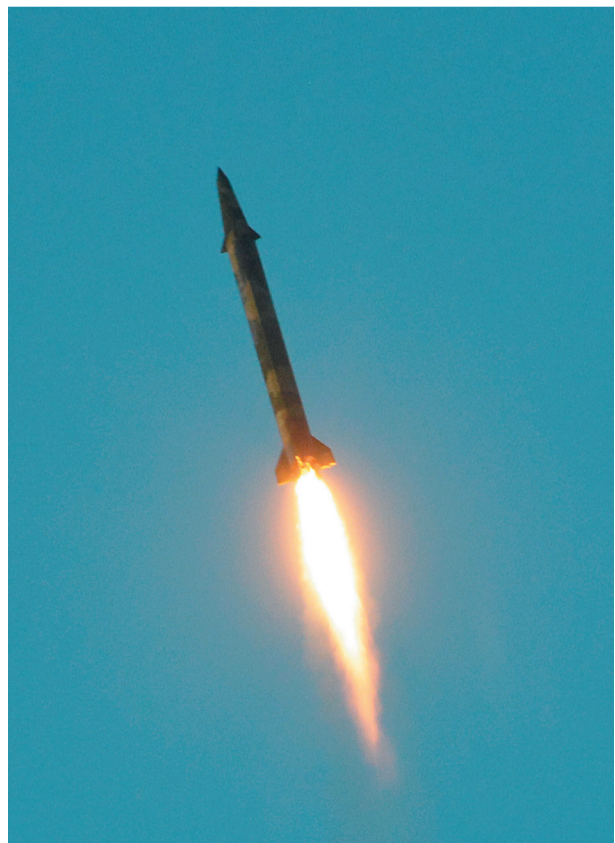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망동질로 차례질것은 결국 죽

음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갈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미제국주의를 괴멸시키며 그 졸개들을 다스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정의의 불은 장검을 더 붉게, 더 억세게 버리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본사기자



보천보의 총성 - 최후승리의 뒤흔개로 올라간다

6월 4일은 보천보전투 승리 8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주제 26(1937)년 6월 4일에 진행된 보천보전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대표적인 전투로서 그 역사적의의는 오늘날도 우리 민족의 부강번영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압제의 어둠을 불사르며 보천보의 밤하늘가에 총천하던 화광, 억눌린 겨레의 가슴에 민족재생과 조국해방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보천보전투.

정녕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민족의 역사에 크게 기록된 사변적인 전투이다.

그날에 울린 총성은 단지 지나간 력사가 아니다. 오늘날도 들려오는 력사의 총소리이다. 지금 겨레는, 세인은 80년전 그날에 울리던 총성을 다시 듣고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일본놈들과 맞서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그날의 사변적인 울림은 지금 이 땅, 이 하늘가에 어떻게 메아리되어 올라가고있는것인가.

자 주 는 조선의 생명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보천보시가지의 가림천기슭에 있는 황철나무옆에서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그 총소리는 압제의 비운이 드리운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그때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고 서술하시였다.

보천보전투가 안고있는 력사적의의, 사변적의미의 하나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억눌린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고 잠자던 민족의식을 일깨워준것이 보천보의 총성이였다. 세계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진줄로만 알고 있을 때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웨친것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메아리친 총성이였다.

당시 조선민족의 운명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조선을 강점하고 잔인무도한 식민지파쇼통치를 일삼던 일제는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켜보려고 별의별 악귀같은 만행들을 다하고있었다.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행하면서 《중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조선백성들이 일본의 《황국신민서사》를 의무도록 채찍을 휘둘러왔다. 조선사람은 일본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지어 조선사람들에게 일본어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내리막인것을 비롯하여 간악무도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였다. 세상에 일본이라는 나라처럼 악독한 나라는 없다.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이 오늘날도 사라지지 않은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에 나라와 령토를 빼앗기고 말과 글까지 빼앗긴 우리 겨레는 그야말로 숨쉬는 시체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광복의 화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주제 26(1937). 6. 4.]

였고 조선민족의 운명은 각일 각 꺼져가고있었다. 삼천리에 암흑이 짙게 드리우고 겨레가 흘리는 피눈물이 강물을 이루고있던 수난의 그 세월 잠자던 강산을 일깨우며 압록강연안에 자리잡은 보천보의 밤하늘에는 항일전의 멸적의 총성이 높이 울려 퍼졌었다.

보천보는 크지 않은 시가지이다. 그리고 보천보전투는 대포와 비행기, 탱크가 동원된 대규모전투도 아니였다. 하지만 일제의 경찰관주재소의 담벽을 벌등지처럼 만들어놓은 항일유격대의 기관총소리, 보총소리는 력사의 큰 울림이 되어 온 조선땅과 해외에도 메아리쳐갔다. 온 겨레가 보천보의 총성을 들었다. 세계가 조선의 보천보에서 울린 총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백두산의 선언이였다. 조선민족은 일본의 총독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북돋아주지 않으며 끝까지 항일의 기발을 들고나간다는 력사의 쟁쟁한 웨침이였다. 일본은 혼비백산했다. 조선민족은 환호했다. 세계는 경탄의 시선을 조선에 모았다.

당시 신문 《동아일보》가 보천보전투소식을 크게 활자로 담아 널리 소개한것도 력사에는 기록되어있다.

저명한 반일인사이며 민족주의자였던 몽양 려운형은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전투현장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후날 그는 자기의 목격담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수십여년세월 왜놈들치하에서 수모를 당해온 망국민의 설움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것 같았다고,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보천보전투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흥분한 백범 김구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번이나 고함을 쳤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전해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동방의 찬란한 핵강국으로 솟아있다. 자주

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세월은 퍼그나 흘러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아직도 어둠의 장막은 가시여지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의 침략과 전횡이 살판치고있다. 유엔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점유물로 되어있고 큰 나라들의 전횡에 작은 나라, 힘이 약한 나라와 민족들의 존엄과 리권이 짓밟히고있는것이 행성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질서》로 되고있다.

침략과 살인으로 생겨나고 살찌는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고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조선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면서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 보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저들은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조선은 쏘아올리면 안된다고 비렬한 제재수동에 매달리고있다. 저들은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조선을 핵무기를 가지면 안된다고 제재하고 군사적위협수동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불의와 압박에 굽어들거나 주춤함이 없이 맞받아나아가며 자주적권리, 자위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가고있다. 인공위성을 보란듯이 쏘아올리고 수소탄을 비롯한 자위의 핵력성을 올린데 이어 《화성》, 《북극성》,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트를 비롯하여 핵공격수단들을 련이어 시험발사성공시키며 자위의 군력을 억척으로 다져나가고있다.

부당한 제재에 자강력으로 맞서고 봉쇄와 군사적위협에 자위의 핵억제력강화로 대담하며 조선이 나아가는 길은 자주와 정의의 길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이다.

온 행성에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던져주며 조선에서 련이어 울리는 탄도로켓트발사의 장쾌한 뒤흔개는 조선은 침략과 전횡을 용납치 않으며 그에 굴

하지도 않는다는 억센 자주기상의 과시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험로역경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신이 선택하고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나아가려는 단호한 결심과 기개의 과시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함시적으로 당하고 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핵무기는 곧 존엄이고 생명으로 되고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것은 결국 굴종과 죽음에로의 선택이기에 세상의 온갖 어지러운 광풍을 맞받아 자위의 뒤흔개를 련속 올려가는 공화국이다.

어제날 항일의 전설적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보천보의 불길에 타고르고 조국해방의 새 봄이 밝아왔듯이 오늘의 선군조선을 자주와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자주적신념의 최고체현자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그이께서는 두해전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계종합지휘소를 찾으셨을 때에도 이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결코 진행되는 중대사건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핵무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후승리는 조선의 것

화광이 총천하던 보천보시가지에서 인민들을 바라보시며 항일빨찌산의 전설적영웅이신 김대장께서는 격조높이 웨치시였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

원수님께서 얼마전 지상대 지상증장거리전략탄도로켓트 《화성-12》형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자리에서도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시면서 상상할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둘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 있다는 현실, 섬멸적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만해서도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시였다.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련전련승의 뒤흔개를 올려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은 80년 전 밤바다같이 응실거리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과 심장은 살았다고 선언하시던 청년장군 김일성주석님의 모습그대로이시다.

조선의 련이 승전뒤흔개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최대의 위협》이니 뭐니하며 공포와 불안에 잠겨 안전부절못하고 복닥소동을 피워대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뒤흔개에서 자주와 정의의 밝은 빛을 보고있다.

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다른 하나의 력사적의의는 일제놈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데 있다.

당시 일제는 비행기와 함선, 탱크와 대포로 무장한 강적이였다.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라며 으시대였다. 조선인

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 하며 토벌에 미쳐날뛰었다.

그러나 그 《일속》이 《창해》를 무찔렀다. 그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모시어 우리 군대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속에서 이룩한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로 《법》이라고 우쭐대던 황군의 위세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제2, 제3의 련이은 전투로 일본의 백만대군은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고 조국해방의 새날이 밝아왔다.

지금 공화국이 맞선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으뜸이라 뽑내는 《초대국》이다.

그러나 침략과 전횡, 간섭을 일삼으며 제멋대로 놀아대는 미국을 쫓아내며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고있는 공화국이다.

적대세력의 온갖 제재를 물리치고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힘을 과시하며 강국의 렬명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한 삶을 굳건히 수호하는 국방력 또한 최대로 강화되였다.

보천보전투때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안긴 기관총과 보총이 오늘날은 수소탄을 비롯한 자위의 핵억제력으로 강화발전되었고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도 순간에 불바다에 잠글수 있는 각종 최신형 핵공격수단들로 자라났다.

핵무기를 들어킨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비상이 높아지고 핵으로 우리 민족을 위협하던 미국이 이제는 조선의 핵에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있다.

최많은 미국에 종국적타격을 선고하며 조선의 탄도로켓트들은 보란듯이 련이어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다. 그 발사장들에서 울리는 우리와 같은 뒤흔개는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예고하는 장쾌한 뒤흔개이다. 그 뒤흔개는 세계가 두려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한갓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놈들과 맞서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승엄한 뒤흔개이다.

얼마전 새 전략무기의 시험발사성공을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탄도탄이 지켜가는 세상, 그것은 침략과 락탈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행성이며 온 겨레가 한데 어울려 평화번영을 누리갈 통일삼천리이다.

그날을 마중하며 탄도로켓트들이 조선의 기상, 민족의 미래를 안고 련이어 만리대공으로 치고있고 있다. 최후승리의 아름다운 렬명이 그 너머로 밝아오고있다.

조선은 보천보의 승리기상으로 최후승리를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재능의 싹을 틔워주는 은혜로운 손길

평양체육단 체조감독 김광속은 10대에 세계체조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체조명수이다. 보통의 노동자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광속은 어릴 적부터 운동 감각이 뛰어났다. 겁이 없고 대단한 용기도 또한 그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질이 남다른 특기도 한 가정의 울타리안에서는 소녀의 재간으로만 남았을 것이라는 것이 부모들의 회고담이다. 그의 소질과 특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빛을 보게 되었다.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치심과 국가적인 관심속에 오래전부터 공화국에서는 학교체육의 대중화, 종목별 전문화가 적극 장려되어 전도유망한 체

육선수후비들이 배출되었다. 어려서부터 체육신동의 싹이 보이던 김광속은 소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기술동작을 터득하며 성공의 디딤돌을 한계단, 한계단 쌓게 되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덕체를 겸비하여 앞날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도록 따듯이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속에서 김광속은 앞날의 체육인재로 성장하였다. 체조를 시작한지 1년만에 그는 공화국선수권대회 소년급 체조경기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었고 그후로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특히 그는 12살때에 도이칠란드에서 있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 고저평행봉운동에서 10점만점으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의 경기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김광속선수는 미국땅에 공화국기발을 띄운 나라의 보배라고, 14살밖에 안되는데 정말 장한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셨다. 인민체육인 김광속은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저를 평행봉운동에서 다리벌려 앞으로 공중돌아 다시 봉을 잡

고 편이어 180° 방향을 바꾸어 낮은 봉을 잡는 난도높은 기술동작을 수행하여 체조전문가들을 감동시켰다. 국제체조련맹은 그가 수행한 기술동작을 《김광속동작》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주체 80(1991)년에 있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 고저평행봉운동에서 10점만점으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의 경기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김광속선수는 미국땅에 공화국기발을 띄운 나라의 보배라고, 14살밖에 안되는데 정말 장한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셨다. 인민체육인 김광속은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저를 평행봉운동에서 다리벌려 앞으로 공중돌아 다시 봉을 잡

고 편이어 180° 방향을 바꾸어 낮은 봉을 잡는 난도높은 기술동작을 수행하여 체조전문가들을 감동시켰다. 국제체조련맹은 그가 수행한 기술동작을 《김광속동작》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주체 80(1991)년에 있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 고저평행봉운동에서 10점만점으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의 경기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김광속선수는 미국땅에 공화국기발을 띄운 나라의 보배라고, 14살밖에 안되는데 정말 장한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셨다. 인민체육인 김광속은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저를 평행봉운동에서 다리벌려 앞으로 공중돌아 다시 봉을 잡

주체101(2012)년 6월 6일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지도, 세심한 보살핌속에 진행된 연합단체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소년단원 2만명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직하시고 대회참가자들이 평양에 초청되었

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소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으로 부르셨다는것을 알고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연합단체대표자격을 못가진 아쉬움은 동심에서 떠날줄 몰랐던것이였다. 소년은 용기를 내어 홀몸으로 열차를 타고 수백리길을 달려 평양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제발로 대회장을 찾아 참가자격을 청원하고있었다. 소년의 간절한 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려깊은 조치에 의하여 즉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뜻밖의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대회에 참가하고싶어 수백리길을 혼자서 달려온 소년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여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며 학생을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조치하시었던것이였다. 그에게는 즉시에 대표증이 수여되었다. 하여 대표인원은 2만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2만 1번째 대표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우고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있어 누구나 태어나면 애기궁전이, 자라나면 배움의 궁전, 소년단야영소 등이 어서 오라 문을 활짝 열고 손저어부른다. 하기에 몇해전 미국의 CNN방송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싶다, 이곳은 아이들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말하였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아이를 버리는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져 한 여성이 23명의 자식을 버리는 《기록》을 세웠겠는가. 서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리유 40가지》라는 책이 출판되어 여성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는 사실, 서방세계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있는것 등은 개인이기주의적사고관점, 황금에 인간도 룰리도 무참히 짓눌리는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준다. 갈수록 성행하는 인신매매와 유괴, 야만적인 학대행위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어린이들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0만명이 인신매매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부지어린이들이 《교양》이라는 미명하에 고등교육에 죽어야 하고 부모들의 동물적패락의 대상으로 숨이 지는 현상들이 부지기수이다. 3살 난 아이를 토끼장에서 키우다 수건을 물려 질식사시켜죽인 사건, 아이를 빵이리로 넣고 뜨거운것을 느낄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려 했다고 거리낌없이 뇌까리는가 하면 2살 난 아이를 끓는 물속에 잡아넣고 회극배우의 모습을 런상해보며 패락을 느끼는 이러한 변태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부모라 부를수 있겠는가. 일본에서도 해마다 약 350명의 14살미만 어린이들이 학대행위로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다. 미래를 어지럽히는것만큼 미련하고 무서운 죄악은 없다.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소생하기 힘들고 사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쇠퇴하며 망한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공화국과 아이들의 지옥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자본주의사회. 실로 어느 사회에 정의와 인권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는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본사기자 김준경



6.1 국제야동절을 맞으며 진행된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체육유희오락경기

아이들의 왕국과 지옥

아이들의 왕국과 지옥

아이들의 왕국과 지옥

18년만에 대지를 밟은 처녀

공화국에서는 그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함흥정형외과병원에도 뇌성마비로 앓은뱅이가 된 처녀를 18년만에 기적적으로 대지를 밟게 한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여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고원군에서 사는 처녀는 앓은뱅이가 된 5살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남의 부축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어서곤 했다고 한다. 어려서는 육체적이고 통이 마음을 괴롭혔지만 점차 철이 들면서 남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괴로움이 더해져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다. 처녀의 병상태를 서술한 병력서를 보느라니 나를 왜 낳았는가고 울다가 제풀에 잠에 든 딸의 머리맡에서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던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슴을 에이며 들려오는듯싶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 함흥정형외과병원으로 왔지만 그들모르는 거나 회복을 포기한 상태였다. 사실 이곳 병원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대지를 활보하게 하였지만 처녀의 경우와 같은 앓은뱅이는 처음이었다. 이곳 의료일군들에게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그 어떤 경험이 없었다. 실패라도 하는 경우 해당 수술 부위에 유착이 들어와 재수술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렇게 되면 처녀는 언젠가는 일어설지도 모른다는 희망마저 영영 버린채 한생을 앓은뱅이로 살아야 하였다. 어느날 깊은 밤 부원장 김문선선생과 과장 안우학선생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과에서 완치시킬 결심을 했는지요.》 그러나 수술의 성과적보장

《그래야 다소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습니다.》 《심정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전 새로운 피부이식수술 방법을 받아들여 수많은 환자들을 완치시킨 전세계 의료일군들에게도 그 무슨 경험이 있었던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얼마후 환자의 무릎과 발목을 원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두차례의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었다. 어느날 환자의 어머니는 딸의 건강을 위해 친혈육의 강을 기울여온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 집으로 내려가 얼마간의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나 수술의 성과적보장

을 위해 근 한달동안 밤잠도 잊으며 고심어린 노력을 바쳐온 이곳 의료일군들은 어머니의 성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장 안우학, 담당의사 한성혁선생을 비롯한 정형외과의 의사, 간호원들은 수술후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의 입에 맞는 음식들을 마련하여 한술도 술 떠넣어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고생을 많이 해온 환자의 어머니도 따듯이 돌봐주었다. 누가 말했던가.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해 4월 중순 18년만에 처음으로 제힘으로 일어난 처녀는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생의 발자욱을 땀다.

다. 일정한 시일이 흘러 기업가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감돌았다. 병원을 나서자니 갈 곳이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때문이었다. 기업가는 자기는 죽자고 병원에 들어온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망속에 빠뜨릴바에야 무엇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해주는것인가고 뉘놓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금이 시각에도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앓은뱅이다리를 고친 기쁨에 앞서 내 다리를 왜 고쳤는가고, 다시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피라게 절규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수 있나. 그러나 고마운 공화국의 제도에서 다리를 고친 처녀의 얼굴에서는 생의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환희와 랑만이 한껏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김영춘

다. 일정한 시일이 흘러 기업가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감돌았다. 병원을 나서자니 갈 곳이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때문이었다. 기업가는 자기는 죽자고 병원에 들어온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망속에 빠뜨릴바에야 무엇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해주는것인가고 뉘놓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금이 시각에도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앓은뱅이다리를 고친 기쁨에 앞서 내 다리를 왜 고쳤는가고, 다시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피라게 절규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수 있나. 그러나 고마운 공화국의 제도에서 다리를 고친 처녀의 얼굴에서는 생의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환희와 랑만이 한껏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김영춘

《화성》, 《북극성》은 자위의 《항로》를 난다

지금 미국과 추종세력은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화성-12》형과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며 제재와 압박 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한편으로는 대규모 침략

무력을 조선반도 주변에 집결시키면서 공화국에 대한 침략 위협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공화국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최강의 핵억제력과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힘을 가진 공화국을 어쩔수도 없다.

당당한 자주의 《항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며 유엔까지 내세워 북대소동을 피우고있는 것은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어쩔수 없는 인정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공화국의 자위적군력강화를 막을수 없게 된 데 대한 극도의 절망과 무기력증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적대세력들은 그 누구를 타하기 전에 애초에 될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핵포기》니, 《제재》니 하며 제 맥만 뿜아 온 어리석은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나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군력강화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행사이다.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성공도 군력강화를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권국가의 너무나 정당한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그 어디를 보아도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주권국가의 탄도탄 시험발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구절이 없다. 유엔헌장 제 51조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 12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규범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 것을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 21조에서도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 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 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자위권행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기 인민과 국가의 최고리

익을 지키기 위한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고 말고 할 사업이 아니며 철두철미 자기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들간의 평등, 호혜를 위한 기초이다.

공화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에 맞서 인민의 운명을 지키려고 선군의 길에 주저없이 나섰을 때 도와나선 나라는 없다.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제재와 고립봉쇄책동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 순수 자기의 기술과 힘으로 자기를 지킬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선군조선의 공지이고 자력자강의 억센 불굴기이며 그 자체가 공화국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자기의 운명과 미래는 회담탁에 올려놓고 흥정할 《상품》이 아니며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

마치고 보면 핵을 만들고 탄도탄을 시험발사할수 있는 권리는 일부 나라들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화국의 핵과 탄도탄 시험발사를 시비하는 나라들 자체가 핵의 국제적 균형을 파괴하는 핵대국들, 잠재적인 핵보유국이며 탄도탄을 만들고 쏘는 것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는 조선만이 아니다.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속에서도 미사일발사경쟁이 날

정의수호, 평화수호의 《항로》

마치고 보면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하고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등 모든 작전공간에 제한없이 운반할수 있는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 것은 미국의 끝

로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수량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있는 미국의 경우에 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에 대한 시험발사만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회가 가까이 진행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이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시험발사하면서 그것이 조선을 겨냥하는 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도 도적교양이 마냥 기습적으로 배치해 놓았다.

공화국의 탄도탄 시험발사에 대해 매년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한 신형우격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보다살이 저들은 핵 및 재래식탄두를 운반할수 있는 미사일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누구는 개발하지 말고 발사하지도 말라는 것이야말로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이고 미국이 세우는 행성의 불공정한 2중기준의 극치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위해 작은 나라, 작은 민족들의 리익을 마구 침해하는 것쯤은 제 손뼉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국의 횡포이고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수 없는 빼돌려진 론리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실사 다른 나라들에는 이 해피한 론리가 통할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가장 정당한 백성의 병진로선을 항구적인 전략로선으로 채택한 공화국에는 추호도 통할수 없다는 것을 핵방군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공화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항로》가 있다.

정의수호, 평화수호의 《항로》

임없는 핵위협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 때 벌써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 민족을 엄중히 위협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1957년 7월에

이르러서는 남조선장점 미군의 핵무장화를 공식 선포하고 1958년 1월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 《오네스트존》 전술핵미사일, 280mm원자포, 《B-61》 핵폭탄, 핵지뢰 등 1720여개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를 끌어다놓았으며 그후에는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을 내들고 세계여론을 우롱하면서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락시켰다.

오늘날 미국은 지구를 수십번 깨버리고도 남을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지는 복잡전쟁연습들에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핵타격수단들이 총투입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이러한 핵공격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국가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의 핵을 들어치는 민족사적장거를 이룩하였다.

핵을 가진 강도와는 핵으로 맞서야만 자기를 지킬수 있다. 이것은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조미대결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자각한 자위의 론리이다.

조미관계는 지금도 교전관계이고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있다. 그것은 조선전쟁형정을 반복하게 유린하면서 공화국의 평화형정체결과 관계정상화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대결과 압살일변도의 정책만을 실시해온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적대적인 교전일방이 엄청난 핵무기를 손에 쥐고 달려드는 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눈을 감고 나를 죽여주소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닐수 없다.

인류의 머리에 재난의 버섯구름을 들쭉고 오늘날은 조선반도에 핵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국의 침략의 핵과 그 운반수단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항하여 자기

민족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려고 개발한 공화국의 핵과 탄도탄들에 대해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흑백을 뒤집는 꾀변이며 괴뢰치성의 극치이다.

공화국이 들어친 정의의 핵과 그 운반수단들은 중국적목적 그 누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 땅에 전쟁의 재난적인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세계의 면전에서

강풍이 불어도 《항로》는 변하지 않는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은 약속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행성의 어두운 현실과 이 땅의 천만년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조선민족을 위해 선택하고 풀들여 일떠세운 자주, 자위의 억센 기둥이다. 수소탄, 전략무기체계들을 그쫄고 갖춘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선 공화국의 지위는 누구도 허물수 없으며 그에 도전적으로, 압살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적망동으로 될뿐이다.

최근 공화국이 미태평양사령부가 동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래스카를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화성-12》형 시험발사에서 성공한데 이어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것은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다발적, 편발적으로 올려피진 승리의 장쾌한 퇴성이다.

명승성이 정확하고 흠잡을데 없이 완벽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인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 다량계열생산되어 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비되게 됨으로써 공화국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수족을 단단히 얽어매고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미국이 《침략도 안하고 체체를 보장할것》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지만 그러한 속임수는 절대로 공화국에 통할수 없는 교활한 요설이다.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어

자기가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이 핵전쟁 그 자체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였었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공화국이 미국의 천만부당한 적대시압살정책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에 상응하게 자위의 핵능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대고 돌아앉아서서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며 핵선제타격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는 것이 미국이다. 공화국이 역적으로 다친 정의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굳건히 담보되고있다는 것은 더욱 명백한 현실로 입증되고있다.

남조선당국도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도, 《싸드》도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위의 핵억제력이고 북남화해 협력정책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다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어떤 제제도, 위협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도, 멈추어세울수도 없다.

만리대공으로 치솟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주체탄들이 더뜨린 장엄한 불퇴성은 어떤 역경이 백겹천겹 덧쌓인다 해도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강인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으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솟구쳐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노도와 같은 진군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힘있게 웅변해주고있다.

《화성》, 《북극성》을 비롯한 각종 탄도탄도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의지, 힘과 미래를 싣고 자위의 《항로》를 따라 계속 기운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조선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겠다

저는 중국 심양시에서 살고 있는 조빈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저는 조선을 방문하여 만경대 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경기를 마치고 김일성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이 저의 집 사진첩에 끼여져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의 태양절까지 저는 4차례 조선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금수산 태양궁전, 주체사상탑, 개선문, 미림승마구락부, 국제친선 전람관 등 여러곳을 참관하면

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현실을 때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선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연이 있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는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조선말과 조선노래들을 배우주었고 조선의 민속전통과 풍습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라온 환경때문인지 조선에 대한 저의 감정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조선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조선의 참모습과 근면 슬기로우며 평화로운 조

선인민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의 외곡된 악선전으로 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조선에서 직접 보고 느낀 모든것을 우리 중국사람들과 세계 여러나라들에 사실그대로 생생히 전하기 위해 1년전에 심양창창시대과학기술유한공사의 동료들과 함께 《조선-금수강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후 가입자들의 진심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의 가입자수는 매일 100만명이상에 달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부단히 갱신하면 가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선-금수강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선의 참다운 현실을 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중국 심양창창시대과학기술유한공사 조빈

얼마전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치는데 크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훈!》, 《명훈!》... 장기에호가인 나는 호기심이 동하여 그러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떠들썩한 흥수군들속에 겹겹히 에워싸여 두 사람이 장기를 두느라 열을 올리고있었다. 치렬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끝에 한사람이 장훈을 불렀다.

《이젠 꼼짝 못했지, 통장훈일세.》, 《아바이, 딱 한수만 물립시다. 한수만》... 싱깅이를 벌리는 두사람을 보느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통장훈! 그 말을 되새겨보느라니 자연 생각이 깊어졌다.

통장훈이라고 하면 장기에사군이 그 어데로도 빠질수 없게 만드는 장훈을 말한다. 문득 지난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한 미국의 한 패전장군이 《조선전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한 고백이 떠올랐다.

그의 고백은 상대방을 모르고 덤벼들다가는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

주고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과 건국이래 110여치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과의 전쟁은 세계전쟁사에 보기 드문 대결이었다.

당시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패하리라고 세인은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승리의 통장훈을 불러 《강대성》을 뽐내던 미국에게 수치스러

수 필

통 장 훈

운 참패를 안기였다.

그후에도 공화국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관문점사건 등 세기를 이어오는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의 통장훈만을 불렀다.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공화국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미국은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지금도 《선제공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

고있다.

하지만 대를 이어 장군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미국의 오만한 강권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수소탄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들과 핵공격수단들을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에서 련이어 통장훈을 부르고있다.

전쟁은 결코 유희오락이 아니다. 장기쪽은 다시 물릴수 있으나 오늘날 조미사이의 마지막대결에서는 절대로 양보가 있을수 없다.

만일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화국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악의 제국을 통째로 불태워 버리고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드립없는 의지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통장훈 받아라!》하는 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나는 온몸에 용솟음치는 힘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리학철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 강렬한 지향

장장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온 겨레의 열망이며 지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도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동성보다 클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들이 아직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대, 문명시대를 개척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한 우리 민족은 인류역사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도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5천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

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 재부마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슬기와 재능, 민족의 단일성이 그대로 살아숨쉬고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 우리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유구한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니, 《〈한〉 미동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느니 하는 사대굴종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지역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은 《특사외교》 놀음에서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조》에 대해 외위됐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고 그 눈치나

보면서 그에 굴종하며 맞장구를 쳐서는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으며 그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뿐이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이 있다. 지나는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듯이 외세와의 공조가 초래할것은 불신의 증대이고 대결과 전쟁위험의 고조이다.

천하의 악녀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고 손에 쇠고랑을 채워 감옥으로 보낸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초불투쟁은 바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이 땅에 열혈 온 천하의 반통일악녀에게 내린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쌍방이 공동으로 일치하게 노력할 때만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또 지난 《정권》 시기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이 아니라 반공화국대결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북남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질 때에만 개선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같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북남관계에서 풀지 못할 난문제가 없으며 얼마든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올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리도선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백두산은 하나 이 땅도 하나

비전향장기수 김 동 기

백두산은 하나 이 땅도 하나
동강난 이 땅은 몸부림치며 분노의
눈물흘린다

어머니소식 기다리고 기다렸다
못걸디게 어머니 보고싶을 때면
통일이여 어서 오라 목메여 웨치었다

교수대에 선 통일애국투사
은몸을 폭발시켜 최후에 웨친
《조국통일 만세!》의 메아리에
백두산도 울리고 한나산도 울리었다

10대소년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 내린 80대 될 때까지
통일의 노래 불렀건만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라

이 강산에 봄이 오면
한나산에서 시작된 진달래꽃물결은
흘러흘러
분계선 철조망도 넘어 백두산으로
흐르고

이 겨레의 통일소원 눈물의 강을
이룬다
하늘도 이 겨레의 통일소원 눈물 막지
못하리
통일소원 눈물이여 노도같이 솟구쳐
내외반통일세력을 수장해버리라

가을이 오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단풍물결은 흘러
흘러
분령담벽넘어 한나산으로 흐르고
이 땅은 단풍으로 하나가 된다

북녘겨레의 통일소원 신고
아 대동강아 흘러라
남녘겨레의 통일소원 신고
아 한강아 흘러라

30여년 독감방에서
봄이 오면 진달래꽃물결에
북녘어머니에게 이 아들소식 띄워
보내고

만나자 통일의 대해에서
우리 겨레 하나되어
백두산도 울리고 한나산도 울리도록
《조국통일 만세!》 목터지게 부르리라

가을이 오면 백두산 단풍물결에

백두산은 하나 이 땅도 하나



평화를 위한 녀성들의 역할과 관련한 토론회 진행

지난 5월 24일 남조선에서 《전쟁없는 〈한〉 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녀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었다.

녀성단체와 종교, 평화단체를 비롯한 30여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과 관련한 열띤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30여개의 녀성, 평화단체들로 구성된 《2017 녀성평화건설기조직위원회》는 《이 땅에서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녀성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며 〈한〉 반도를 전쟁없는 땅, 생명평화상생의 땅으로 만들고자 녀성평화건설기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2017 녀성평화건설기》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녀성의 날》

을 맞으며 《새 〈정부〉에 보내는 녀성들의 요구문》도 채택하였다.

이들은 요구문에서 《〈한〉 반도 군사적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고통받는 리산가족들의 재결합을 하루빨리 추진하라.》, 《평화통일정책과정에 녀성의 참여를 남녀 동수로 확대하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군비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의

복지에 사용하라.》, 《비극의 땅 DMZ의 평화적리용을 보장하라.》, 《순수목적의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제도화하라.》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국회》를 동족대결의 마당으로 만드는 대결광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국회》인사청문회장을 반공화국대결장으로 만들고있다.

보수패거리들은 《안보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인사청문회대상들에게 《색갈론》 공세를 들이대면서 도발적인 반공화국대결악담들을 꺼리낌없이 내뱉고있다.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그들은 《북인권개선에 대한 명백한 립장을 밝히라.》, 《〈천안〉 호사건의 배후가 북이라는데 찬성하는가.》라고 악정을 뽐내며 《이거 들구있는가 하면 《북을 신봉하는 종북세력을 청문회장에 세운것부터가 잘못》이라느니 뭐니 하며 악담질을 해대었다.

동족대결에 이끌리 난 보수패당만이 연출할수 있는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대결광대극이다.

북남관계를 결판내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기다리는 짧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해괴한 추태여서 남조선 각계에서는 비난과 조소가 비발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국회》의원은 《지독한 색갈론 공세 이제는 막 신물이 난다.》고 청문회장에서 고성을 터뜨리었는데 《이거 뭐예요. 특등범죄자들이 〈정의〉를 떠드니. 여기 문회장에 세운것부터가 잘못》이라느니 뭐니 하며 또 〈안보〉 타령 하시

네. 이제는 전쟁하자는거죠.》, 《﴿남은 자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시대착오적인 발목잡기 그만 하세요.》 등의 조소어린 글들이 폭발적으로 오르

고있다.

초불항쟁의 승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세를 주도하는 힘은 남조선민심에 있다는것을 보수패거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비극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정권》에서 밀려난 분풀이를 《국회》에서 해대며 지랄발광해야 그로부터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최후종말의 시각만을 앞당기게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 《4대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발힌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은 지난 몇달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끝머리를 짜내던 끝에 마침내 대조선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확정하는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4대기조》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서명한 《4대기조》란 첫째로,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로,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셋째로, 《북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정책》 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수 없다.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필두로 국무성, 국방성, 국토안보성 등 주요부, 처들과 제노라하는 두뇌진들이 모여 들어 북적거리길래 무슨 일이라도 치는가 했더니 큰 산이 울어 생쥐 네마리가 나온 격이 되었다.

대조선정책 《4대기조》라는 물건이 하도 진부하고 어이없고 허무맹랑한것이어서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력사의 교훈에 무지한 트럼프행정이 허황한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도록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을것 같다.

미국의 한 정치군사평론가가 미국의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100대이상의 《F-16》 전투기, 《F-35》 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반도지역에 급파되어 훈련하는것은 1991년 만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행정이 광도에서 민방위대책과 반테로문제까지 논의하게 된것은 《대북선제공격》이 립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급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외교적정벌방안》까지 휘두르고있는가 하면 트럼프 자신이 나서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돌아치며 대조선외교압박전선에 합류하라고 기업을 토하고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등 불치의 미국병에 시달리느라 허약해지고 병들어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늙고 병약한 환자가 바로 미국이다.

제모도 가늠하기 힘들어 이제는 《세계현병》노릇도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이 나라 저 나라에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처지에 놓인 미국은 혼자힘으로는 조선을 압박할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이 나서주는 수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응을 일켜 세계정치의 지각이 달라지고 동방조선에서 일어빈진 자주의 붉은 파도가 세계판도를 휩쓸어 미국의 세계지배야망이 물거품이 되고 미국주도의 일극세상은 끝장나게 된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조선민족의 룡성변명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서도 영원히 보존되고 소중히 가꾸어야 할 지구의 꽃이라고 하고있다.

《핵보유국불인정》은 진퇴량난의 비명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4대기조》의 첫째 항목이다.

이것은 그 무슨 《정책》이라고 하기 전에 절망의 벵랑끝에서 질러대는 탄식소리 또는 막무가내로 부러대는 어거지때라고 하는것이 합당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들고다니는 핵가방안에 핵단추와 함께 핵도장도 들어있는가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 핵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 누가 미국의 도장을 찍고 핵보유국이 되길라도 했던 말인가.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위험한 말기증상으로, 사물현상의 이를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것은 전형적인 정신병증세로 진단한다.

력사학자들은 객관적진실을 부정하고 과학적인식을 범죄시하는것은 무지와 몽매, 야만적인 종교재판이 살판치던 중세의 암흑기이나 불수 있었던 행태라고 설명한다.

문학가들은 우리가 핵을 보유했음에도 핵보유국이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미국을 두고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한페지를 보는것 같다고 조롱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1g의 원유와 환풍의 돈도 우리 경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경과 해상, 세계금융통로들에 촘촘한 제재봉쇄그물을 쳐놓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코트》로 각국을 위협공갈하면서 우리를 질식사시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험간한 나라는 이러루한 압력이면 험간을 들고남았을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뜻강아지처럼 덤벼드는 트럼프패들이야말로 어리석다 못해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을 무엇으로 압박할수 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강력으로 그 어떤 제재와 봉쇄의 쇄그물도 썩은 바줄처럼 끊어버리며 내달리는 만리마의 질풍노도를 무엇으로 막을수 있는가.

원수들의 제재강도가 세지면 그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해지는것이 조선의 정신력이며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것이 조선의 기상이다.

날로 약탈해지는 적대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확신을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더러 이 제도를 지키는 핵보검을 내놓으면 침략도 하지 않고 제도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고있으니 이것은 산사람보고 간을 빼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것이나 같은 뻔뻔스러운 수작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정권교체배제》나발을 뒤집어보면 날강도의 횡포무도한 위협공갈이 독을 풍기고있다.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침략도 불사하고 제도전복도 서슴지 않겠다고 소리인것이다.

에당초 한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침략을 하느니 마느니, 정권을 교체하느니 마느니 하는파위를 공공연히 정책기조로 정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방자하고 횡포무도한 전횡인가.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사활적요구와 자주적결단에 따라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었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이 아니다.

또 누가 인정하지 않다고 하여 우리의 수중에 분명하게 틀어쥔 핵이 없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불인정》이니 뭐니 하고 미국이 말장난을 하는 이 시각에도 더욱 다 양화, 고도화되고있는것이 우리의 핵무력이다.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우겨대는것은 눈뜬 소경들과 정신병자, 우매한자들 뿐이라는 소리이다.

사실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무척 괴로울것이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나가면 2020년까지 1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게 된다고 저들입으로 떠들면서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스스로 모르지 않기때문이다.

모다 센것이 약한것을 누르는것을 가리켜 압박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미국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심단결의 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인 우리를 압박한다는것인지 자던 소도 깨어나 웃을 일이다.

자유와 번영의 천국으로 광고하던 《아메리칸드림》은 이미 깨어져나간지 오래고 미친듯한 침략전쟁으로 국고가 거덜이 나고 만성적재정위기,

원수들의 제재강도가 세지면 그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해지는것이 조선의 정신력이며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것이 조선의 기상이다.

날로 약탈해지는 적대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확신을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트럼프행정은 미국이 지난 70여년동안 조선에 대한 고립봉쇄와 압살책동으로 얻은것은 상처와 고통과 수치뿐이라는것을 명심하라는 백악관 선임자들의 침울한 조언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누구의 제도를 전복하는것은 의례히 정의를 옹호하는것이지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그를 추궁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것은 강도가 남의 집 문지방에 칼을 빼들고 서서 집주인에게 침범하지 않겠네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지껄이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제도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잘 안다.

미국과 줄개들에게 물건대 미래평양군사령부가 등지를 들고있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안에 둔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이 우뢰같은 폭음을 울리며 만리대공에 멸적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장쾌한 광경이 너무 눈이 부시어 눈앞의 현실이라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것인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것처럼 그 명중성이 적의 눈깔도 파먹을만큼 정확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들, 다량계렬생산되는 《북극성-2》형과 같은 주체탄, 주체무기들이 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비되어 임의의 시간, 임의의 공간에서 저들의 머리에 불벼락이 쏟아져내리게 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것인가.

결국 미국의 《핵보유국불인정》은 실제상 우리 공화국이 더는 무시할수 없는 핵강국으로 떠올랐다는것을 인정하는 완곡된 표현, 무언의 선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류의 머리에 반제자주의 기치, 정의의 화불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붉은기가 침략과 략탈, 제 인민들의 피로 물든 미국의 성조기를 력사의 진창에 처박고 세기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현실은 미국으로서의 악몽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북정권교체》나발은 오만무도의 극치

심리학자들은 이런것을 가리켜 주로 심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꺼려하던 공포스러운 현실에 맞닥들었을 때 보이는 일종의 자기기만 또는 자체위안 현상이라고 말한다.

의학자들은 눈앞의 대상을 변변히

우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여기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까지 덧붙이면 공포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라산하였을수도 있다.

실지로 미국을 그 어떤것도 마구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쳐지게 한다는 《공포작전》, 《충격작전》이 《미치광이이론》의 입김을 받으며 더욱 광기를 띠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정계에서는 트럼프패들이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에 나서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는가 하면 미국내에서는 《2차 조선전쟁씨나리오》가상도가 공개되어 《전쟁위기설》을 부추겨대었다.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네니 제발 믿어달라.》느니 뭐니 하며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 애원가까운 어조로 울려나오던 이 말이 트럼프행정의 대조선정책 《4대기조》의 셋째조항으로 정식 들어갔다.

영글한 미국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서부른 둔갑술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말이 신빙성을 떠나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특수전부력까지 끌어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도 그만두는 용기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만능의 도깨비방망이로 여기고 함부로 조선에 대고 휘두르다가는 제머리만 까는 비극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안다.

그것은 호시탐탐 우리 주권, 우리 제도를 노리는 침략자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먹을 강위력한 우리의 기적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어 자위의 성세를 높이 쌓는 길이다.

미국은 감히 우리의 심장인 최고수뇌부와 신성한 우리 제도를 건드리는 경우 미국당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망상을 미련없이 집어던져야 한다.

《제재와 압박강화》는 궁여지책

《조선에 대해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4대기조》의 둘째항목이다.

트럼프행정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이 경직된 사고를 풀지 못한채 마침내 한계에 부딪친것이 분명하다.

시대착오와 파대망상에 걸린 돈끼 호폐처럼 이전 행정부들이 골백번도 더 쓰다 써버린 《제재와 압박》이라는 녹슨 창을 백악관의 병쟁기고에서 다시금 뒤져내어 꺼내들었기때문이다.

혹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말이 《묵시록》의 끔찍한 지옥장면을 떠

우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여기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까지 덧붙이면 공포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라산하였을수도 있다.

실지로 미국을 그 어떤것도 마구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쳐지게 한다는 《공포작전》, 《충격작전》이 《미치광이이론》의 입김을 받으며 더욱 광기를 띠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정계에서는 트럼프패들이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에 나서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는가 하면 미국내에서는 《2차 조선전쟁씨나리오》가상도가 공개되어 《전쟁위기설》을 부추겨대었다.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네니 제발 믿어달라.》느니 뭐니 하며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 애원가까운 어조로 울려나오던 이 말이 트럼프행정의 대조선정책 《4대기조》의 셋째조항으로 정식 들어갔다.

영글한 미국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서부른 둔갑술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말이 신빙성을 떠나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특수전부력까지 끌어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도 그만두는 용기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야수의 본성이 변한다면 미국은 벌써 미국이 아닐것이다.

이 시각도 미제침략군의 특수전부대의 살인악당들은 《참수작전》을 떠들며 도발의 칼을 치친듯이 갖고 있으며 악의 본산인 미중양정북은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전문기구까지 조작하고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음모까지 꾸미며 발광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중오심과 체질적거부감은 미제국주의의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병폐이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4대기조》의 마지막조항은 트럼프행정이 진퇴량난과 궁여지책의 덫에 빠져 해매다가 이른 자가당착의 종착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줄개들은 트럼프행정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조미량자대화나 6자회담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고있다.

절에 간 놈 재에는 뜻이 없고 재밭에만 눈이 간다고 지금 미국은 《대화》의 간판은 걸치레로 내걸고 실지로는 제재압박과 《북핵폐기》에만 눈이 세빨게 돌아가고있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은 북의 태도변화이며 그를 위해 당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트럼프가 직접 남조선당국에 대고 지금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단계인것만큼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대조선압박노력에 적극 협력하라고 내리먹이있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조선에 대해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4대기조》의 둘째항목이다.

우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여기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까지 덧붙이면 공포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라산하였을수도 있다.

인류의 머리에 반제자주의 기치, 정의의 화불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붉은기가 침략과 략탈, 제 인민들의 피로 물든 미국의 성조기를 력사의 진창에 처박고 세기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현실은 미국으로서의 악몽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는 묵인하면서도 기를 쓰고 우리의 핵만을 문제시하면서 달려드는것은 바로 그것이 반미자주의 성세, 인류회담의 등대인 사회주의조선이 틀어쥔 핵이기때문이다.

정의의 핵무력으로 강성을 떨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인민의 모든 꿈을 활짝 꽃피우며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눈부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4대기조》의 마지막조항은 트럼프행정이 진퇴량난과 궁여지책의 덫에 빠져 해매다가 이른 자가당착의 종착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줄개들은 트럼프행정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조미량자대화나 6자회담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련이어 언론에 나서서 《북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느니,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느니, 《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수 있는 합리적선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마치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화》타령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짓는 삶의 웃음일뿐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적인 순리라면 이른바 대조선정책 《4대기조》에서 제일 처음 있어야 할 《대화》조항이 거꾸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최종적으로》라는 딱지까지 달린 채 놓인것만 보아도 그 흥심이 무엇인가를 대뜸 알수 있다.

그것은 선 압박, 후 협상원칙에 따라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락에 끌어내어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것이다.

지금에 어느때이고 상대가 누구인데 19세기때 남의 나라 해안에 기여들어 대포를 광광 쏘아대고는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포함의교》를 재현해보겠다고 너털거리는가 하는것이다.

《대화》의 간판은 걸치레로 내걸고 실지로는 제재압박과 《북핵폐기》에만 눈이 세빨게 돌아가고있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은 북의 태도변화이며 그를 위해 당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트럼프가 직접 남조선당국에 대고 지금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단계인것만큼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대조선압박노력에 적극 협력하라고 내리먹이있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동안 조미쌍방은 비공개 또는 공개로 별의별 협상을 다 벌려보았으며 그 과정에 1993년 6월의 조미공동성명, 1994년 10월의 조미기본합의문, 2000년 10월의 조미공동컴퓨터,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합의와 성명도 힘겹게 도출해내었다. 비극은 그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리행된것이 없는것이다.

《대화》타령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짓는 삶의 웃음일뿐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적인 순리라면 이른바 대조선정책 《4대기조》에서 제일 처음 있어야 할 《대화》조항이 거꾸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최종적으로》라는 딱지까지 달린 채 놓인것만 보아도 그 흥심이 무엇인가를 대뜸 알수 있다.

그것은 선 압박, 후 협상원칙에 따라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락에 끌어내어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것이다.

지금에 어느때이고 상대가 누구인데 19세기때 남의 나라 해안에 기여들어 대포를 광광 쏘아대고는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포함의교》를 재현해보겠다고 너털거리는가 하는것이다.

원인은 미국이 회담을 호상간 얽힌 문제를 푸는 장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공갈하는 수단으로, 세치 혀로 우리의 《주먹을 펴게》하여 녹여내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해온데 있다.

미국이 대화를 압박의 연장으로 여기는 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핵을 그 무엇과 바꿀수 있는 흥정물로 착각하는 한, 그 시커먼 속에서 칼을 꺼내놓지 않는 한 설사 대화가 열린다 한들 인간과 야수와의 언어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7면으로 계속)

근거리적 압박으로
일을 짓는
하나로
없다

6월에 들어와서도 조선반도에는 폭발위험을 안은 침예한 국면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이미 조선반도 해역에서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하여 남조선군과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한 미국은 핵항공모함 《니미즈》호를 또다시 조선반도 주변에 증강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조선군과 함께 서해열점수역에서 연합해상기동훈련을 벌리는가 하면 약병은 《B-1B》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지역상공에 끌어들이며 핵폭탄투하훈련까지 벌리고 있다. 한편 미국은 비상히 강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투입될 핵전략자산들의 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책동에 대해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국은 《에이브라함 링컨》호를 비롯한 《니미즈》급 핵항공모함들에 공화국의 전략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신형스텔스전투기 《F-35C》를 탑재할수 있도록 함전투체계를 개조하는 한편 정밀 유도폭탄 《GBU-12》투하훈련도 강화하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급 핵동력잠수함들의 순항미사일발사관을 12개로부터 40개로 늘여 지상공격능력을 3배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난해 5월에 건조한 스텔스구축함 《 Zumwalt》호의 전투능력도 최대로 높여 빠른 기간에 남조선해역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들의 공격능력이 향상되면 북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느니, 《유사시 북의 해안지대를 공격하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느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북정권교체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북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것이다.》는 너두리를 늘어놓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이러한 군사력강화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사실들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흥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양 건너 미국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체제보장》이니, 《대화》니 하고 떠들지만 그것은 내외여론과 공화국을 기만하고 일러넘기려는 간특한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은 언제한번 대조선침략야망을 버린적이 없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아왔다. 미국이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자마자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다 못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력자산들을 편이어 조선반도지역에 들이밀어 핵전쟁위험을 가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물과 불이 상구이듯이 평화와 핵전쟁소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앞에서는 평화를 떠들어대고 그 막뒤에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북침선제공격의 기회만을 노리는 미국의 교활한 정체는 기나긴 조미대결의 역사를 통해 날날이 폭로되니 오래다. 미국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상투적인 이중적행위로 그 누구를 얼려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국의 한두마디의 오설에 긴장을 풀고 무장해제당할 공화국이 아니며 그러한 음흉한 술수에 넘어가 운명적인 선택인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길에서 물러설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은 침략자들이 해상이면 해상, 지상이면 지상, 공중이면 공중 그 어디로 침범해오든 임의의 바늘귀같은 개별적목표도 정밀타격할수 있게 고도로 과학화, 첨단화 되어 있다. 미국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승산없는 군사적대결을 추구한다면 공화국은 이미 선언한대로 더 큰 《선물보따리》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6면에서 계속)
* *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이어 확정한 이른바 대조선정책 《4대기조》라는것은 백악관정책작성팀의 지적능력의 한계와 시야의 협예성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자신도 믿지 않는 그러한 꾀변들은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조선의 핵에 부딪쳐 아메리카의 세계 패전력이 맥을 주지 못하게 된것은 물론 미국자신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데로부터 더저나온 숨가쁜 비명 소리에 불과하다. 트럼프행정부가 진실로 우리와 그 무엇을 이루어보고싶다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성급하게 놀아낼것이 아니라 트루먼으로부터 부쉬와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행정부들이 왜 70년 넘도록 조선과 맞섰다가 모두 쓴맛을 보고 수치스롭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부부터 똑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트럼프의 일관성없고 예측불가능한 정책이 상상할수 없는 재앙

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때에는 비행고도와 사거리에 대해 삐죽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였으며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의 시험발사때에도 단편리가 끝난 다음에야 겨우 발견한데다가 발사장소도 왕청같은 곳을 지명하여 개교망신을 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최근 공화국에서 있는 정밀중용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때에 대해서도 그 류형과 발사체개수에 대해 정확히 단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정밀분석중에 있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놀아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내부에서는 《군부의 대북정세—10》이 창공높이 솟구쳐 자랑찬 비행운을 새길 때까지도 감지조차 못하여 사람들로 부터 《깜깜이》, 《떡통》일뿐이라는 조소와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 남조선군부패거리들이 입만 터지면 미국과의 그 무슨 《혈맹관계》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돈을 상

을 불러올수 있다고 하는 미국정계와 대조선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둥쳐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끄떡없으며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처 정신차릴새 없이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질것이다. 위대한 병진로선을 따라 우리가 가는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전승호

《킬 체인》
최근 공화국에서 《주체란》의 장쾌한 퇴성이 온 행성을 진감하며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터져오르고있는 속에 남조선군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여 세간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군부는 북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고 하면서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그것을 보면 정찰위성, 중고도무인정찰기, 영상 및 신호정보수집기, 전파탐지레이더 등 정보수집장비로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진지에 대한 정밀 감시를 진행하다가 그 무슨 《위협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선제타격》한다는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이 최근에 단행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들의 시험발사를 계기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호언장담하던 이러한 체계들의 취약점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남조선군부는 공화국의 《화성—12》형지상대지

못된 버리지 장관에서도 모로 긴다며 최근 남조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의 부역자들이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는 순간에도 《싸드》배치와 같은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흑막속에 은폐하려다 들통이 나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월 25일 남조선군부는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새로 등장한 현 당국에 《엄무보고》라는 것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싸드》발사대 4기를 몰래 들여다 숨겨놓은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따지는 청와대관계자에게 국방장관이라는자는 《그런게 있었나요?》하며 모르쇠를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 청와대안보실장이라는자는 10일동안이나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의 정치권에서는 《국방부가 아직도 박근혜(정권)의 국방부로 착각하고 있다.》, 《기강을 문란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한미동맹을 버릴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떠들며 《국회청문회》소집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군부세력들은 《〈싸드〉가 이미 전개되었는데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하는 식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싸드》배치문제를 흑막속에 감추어보려는 남조선군부의 추악상은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관점에 물젖어있는 박근혜부역자들의 더러운 친미굴종기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따지고보면 미국이 그 누구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남조선에 배치한 《싸드》는 결코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공화국의 장거리포들과 로켓들앞에 맥도 못쓰는 괴물단지 《싸드》를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것은 철두철미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미국의 《싸드》배치는 주변나라들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역

적무리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앞두고 혼란된 정국을 리용하여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었다. 침략의 《싸드》배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들의 타격목표로 되었다. 조선민족의 피가 꼬물만큼도 없

데골프장을 최종부지로 발표한 국방부이다. 지어는 미군에 《싸드》부지를 제공하는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싸드》장비를 들여오고 《환경영향평가와 기반공사》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싸드》장비를 도적고양이처럼 밤에 소성리(이전 롯데골프장자리)에 몰래 반입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싸드》배치는 모든것이 안개속에서 진행되어왔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싸드〉배치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수많은 파쇄기를 청와대에 끌어들이 죄악문서를 없애버렸다면 그에 추종해온 떨거지들은 《싸드》배치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백주에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사람은 량심에 살고 량심은 량심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천만번 죽어도 씻지 못할 대죄악을 지저르기도 해결된것이 없다고 보고 내놓고 3일만에 배치를 결정하였는가 하면 성주포대가 최적지라고 우기다가 민심의 거센 항거에 부딪치자 말을 바꿔 《제3부지》를 운운하면서 못



《싸드》레이다운용중지와 《싸드》배치철회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 김천시의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24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레이다운용중지와 《싸드》배치철회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방부와 미군이 불법적인 《싸드》배치로 주민들을 위협한 전자파의 생체실험대상으로 만들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미국의 립장에서

서 《싸드》레이다의 효용성을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자기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난하였다. 《싸드》운용교본에는 레이다를 중심으로 반경 100m안은 강력한 전자파 화상을 비롯한 각종 피해를 줄수 있기때문에 절대 위험지역으로, 반경 3.6km 안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국방부와 미군이 성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에게 아무런 위험통보도 하

지 않았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국방부가 《싸드》레이다의 가동여부는 물론 전자파의 위험정도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싸드》는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이 없다고 우기고있다고 성토하였다. 현 《정부》가 《싸드》레이다운용과 불법적인 《싸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한민구를 비롯하여 국민을 기만한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력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발작증

남조선에서 박근혜-최순실의 썩어놓은 온갖 폐물들을 청산할때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속에 얼마 전 교육당국은 역도년이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다시 검정교과서체로 바꾸어 시행할때 대한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교육당국은 사회각계의 의견을 받아 이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진교조를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은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적인 단체들도 환영해 나가고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력사의 자대가 정치적으로 따라 왔다 갔다할수 없다.》느니,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결정》이니 뛰어나며 《국정력사교과서》 폐기를 한사코 막아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남조선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정치청맹파니들의 가련한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말 천수백만의 각계층 인민들이 떨쳐 일어나 벌린 초불투쟁은 박근혜심판과 함께 역도년이 감행한 온갖 죄악들에 파멸을 선고하였다. 거기에는 역도년이 제 예비인 《유신》독재자를 비롯하여 파쇼와 동족대결만을 일삼던 역대 보수패당의 죄악에 찬 행적을 미화분식한 《국정력사교과서》 강행책동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국정력사교과서》는 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고 동족대결과 친미친일굴종을 추구한것으로서 세상에 생겨나지 말아야 할 한갓 파

지에 불과할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예비를 신비화한 《국정력사교과서》를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지어는 제년이 탄핵되기 전까지 그것을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육자들에 의해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민심의 초불바다에 타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덤속에 처박힌 가련한 신세인 《자유한국당》이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고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박근혜의 유물인 《국정력사교과서》를 한사코 부당하고 기를 쓰고 독을 퍼우는것은 과거의 피비린 파쇼독재체제를 부활시켜보려는 헛된

기도의 발로이다. 《국정력사교과서》 폐기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의 추태는 무덤속의 송장을 살려보겠다는 어리석은 노릇으로서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의 비렬한 추태를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다.

초불민심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에 도전하는 불의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진멸속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죽음만 재촉할뿐이다. 실오리같은 명줄을 이어가고있는 보수정당들은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보려고 발광해보았자 력사교과서의 갈피에 천하의 인간추물, 회대의 역적배들의 최후발악상으로 덧새겨지는것밖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부끄럼과 과거와 정면해야 한다

김광률

최근 남조선당이 《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부》부, 처들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수용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위원회》사업에 일정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로 말하면 2001년에 《정부》의 독자적인 기구로 발족하여 한동안 《보안법》 폐지, 《비정규직노동자차별철폐》, 군내 《인권유린행위 및 의문사 사건조사》 등의 인권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던것이 북남대결에 환황한 리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남조선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똥단지같은 것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늘어지며 북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해왔다.

《북인권기구》라는것이 새로 조직되었는가 하면 그해 8월에는 당시 위원장이던자가 《북인권문제가 인권의 권고수용률을 높일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위원회》가 라는 비난을 받았다.

《북인권문제》에 집착하던 나머지 2010년 5월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러 온 유엔특별보고관에 동판지같이 《북인권엔 관심이 없는가.》라고 하며 《북인권실태자료》라 하는것이 담긴 가방을 넘겨주려다가 망신을 당한것도 《인권위원회》떨거지들이었다. 또 《대북방송과 배라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는가 하면 《북인권센터》와 《북인권기》를 설치하고 《신고》를 부추기는 선전술을 배포하는 등의 대결망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한것이 바로 《인권위원회》였다.

이처럼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는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대결의 앞장에서 날뛰는 수차례의 악화를 부채질해왔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인권위원회》가 북남관계악화를 더욱 심화시킨 지난날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출발할것을 강력히 요구 하고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량심수석방과 보안법철폐촉구 1 123회 목요일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인권위원회)의 격상이 떨어져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북의 (인권)만을 문제시했다.》고 비난하면서 《(민가협)과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부)에 1년전 남으로 들어온 북녀성종업원 12명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것을 요구한다. 또 6년전 속아서 남으로 온 평양 주민 김련희도 즉각 송환해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는 남조선의 《인권위원회》가 지난 시기와 같은 동족대결소동을 그만둘데 대한 민심을 반영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검찰개혁과 악폐청산을 위해 초불을 들것이라고 선언

남조선인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 등 남조선단체성원들이 5월 25일 검찰청앞에서 초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초불과 함께 《검찰개혁의 청산은 사회대개혁의 시작!》, 《검찰내 폐거리 문화 청산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할것을 요구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검찰내에서 터져나온 돈봉투사건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돈봉투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죄행을 눈감아준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였다고 폭로하였다.

검찰이 범죄의 뒤처리해 주면서 부패한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떡검》, 《색검》이라는 말이 고

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검찰의 악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대개혁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의 검찰개혁추진을 지켜보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를 끌어내린것처럼 검찰개혁과 악폐청산이 이루어질 때 까지 초불을 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회세의 《국정》통단사건으로 재판장에 끌려나온 박근혜가 자기의 범죄를 전면부정하면서 오만 무례하게 놀아대며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5월 23일 첫 공식재판에 초췌한 물팔을 드러낸 박근혜역도는 검찰측이 제기한 죄물수수와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 작성, 청와대기밀문건투출 등 18가지나 되는 범죄행위사실들에 대해 《보고받은적이 없다.》, 《지시한적은 없다.》, 《검찰이 강제로 몰아가고있다.》고 조목 조목 전면부정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25일에 진행된 2차재판에서도 역도는 최순실의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자사를 연기하고 예정된 중인심문일정을 취소할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 재판기일을 연장하여 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보려고 잔꾀를 부리었다.

특히 박근혜는 재판과정에서 꼬물꼬물 죄의식도 없이 추한 낯짝을 뻗뻗이 쳐들고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재판부와 검찰측, 방청석을 뻔뻔 쳐다

뻔뻔스러운 역도년의 추태

보는가 하면 웃음을 짓고 지어는 하품을 하고 팔짱을 끼고 턱까지 고이면서 오만불손하게 놀아댔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박근혜식 오만성과 파렴치성의 극치라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만고죄악들은 이미 공범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론박할수 없는 증거

물들을 통해 밝혀졌으며 재판과정에서 그 진상은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더우기 박근혜는 범죄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황교안과 같은 특급줄개들을 동원하여 암암리에 하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이며 조직적인 증거인멸범죄까지 저지른 중죄인

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역도가 재판장에 서까지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범죄증거문서들을 없애버렸다는 안도감에서 최순실에게 모 든 혐의를 넘겨줘우면 살 속타산으로부터 나온 추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의 오만무례하고 철면피한 행동은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의 청백함을 주장하던 사람들까지도 2차공식재판이 끝난 후 박근혜가 자기들의 눈

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각계에서는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워보려는 박근혜의 모습이 경악스럽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20년이상의 중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역도년과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박사모》를 비롯한 부패보수정당들은 아직까지도 역도년을 비호하면서 동정여론을 조장하려고 하여 만사람의 비웃음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물은 팔로 흐르고 죄는 지은데로 가는 법이다. 박근혜역도와 그 부역자들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가며 살구명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질을 해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 사람들이 어떤 케 하는 역도의 죄악들이 련이어 드러나 민심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더 자아내고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까지 70여일 동안 3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특수활동비》로 탕진한 죄악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세력들은 박근혜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적용무로 리용했다면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현 당국이 즉시 이에 대한 조사를 내실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일반인과 다름없게 된 박근혜가 매일 5 000만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박근혜에게 횡령죄를 추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부가 박근혜에게 중형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금 이 돈을 둘러싸고 박근혜측근들과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패들이 서로 책임을 넘겨줘우면서 퍼져지는 싸움질을 벌리면서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특수활동비》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고있다.

미친개는 죽어도 더럽게 죽는다고 민심의 심판을 받고 저승길을 가면서도 추하게 노는 역적무리들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집권안보를 위한 파쇼독재강화

와 동족대결을 위해 《치안유지비》와 《정보활동비》의 명목으로 술한 돈을 탕진하여왔다. 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속에 《치안유지비》와 《정보활동비》가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로 간관이 바뀌었지만 공적인 목적보다도 집권자들의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해 탕진되어왔다. 이런것으로 하여 《특수활동비》는 《부정부패의 온

상》으로 불리우고있다. 특히 박근혜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정무보원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에 천문학적돈을 뿌려가며 그들을 제년의 수족처럼 부려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인민들을 깨게 등쳐먹은 도적무리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술한 돈을 탕진한데 대해 여론들은 역도년이 그 돈을 탄핵각을 위해 변호인들을 고용하고 《박사모》를 비롯한 꼴통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데 탕진하였을것이 라고 분석하고있다. 또 꼭두에 부은 물 발

뒤꿈치에 흐른다고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역도년이 대기업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들여 돈을 강탈하는것을 많이 목격한 청와대의 줄개들이 그 돈을 따 사용처를 알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마구 탕진하였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큰쥐에 작은 새끼무리들이라고 박근혜와 그 줄개들은 역시 인민들을 깨게 등쳐먹은 도적무리들일뿐이다. 피땀흘려 지은 낱알을 훔쳐먹으면서 온갖 전염병만 퍼뜨리는 쥐무리처럼 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온갖 죄악만 일삼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한시바삐 박멸함이 마땅하다.

